

# 민주당 여력 없고, 평화당엔 힘이 없고, 바른미래는 의지 없어 호남예산은 누가 챙기나

### 여야 충돌 날치기 심사 불가피 광주·전남 현안예산 누락 우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5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까지 들어가 한다고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수용해야 예산안에 협조하겠다고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했지만 야당들의 보이콧으로 표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여야가 수정 예산

안을 마련해야 내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개표에 따른 야권의 반발 등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 예산을 제대로 밀어줄 정치적 입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 집행 사업의 경우, 각 교섭단체 정당 간사들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위에서 보류 상태의 금액 심사는 물론이고 증액 심사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면 밑에 깔려 있다.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깨지면서 소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태도도 예전같지 않다. 과거 추미애 대표 시절 당내에 호남 특위를 구성, 지도부 차원에서 지역 예산을 꼼꼼히 챙겼지만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가 파행의 과정을 거쳐 박락되기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을 책임지고 나설 정당이 없어 과연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 서삼석 의원(무안·신안·영암)이 광주시와 전남도 측으로부터 시급한 증액 예산 목록을 민주당 조경식 간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과연 성과를 낼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이 호남의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협상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광주형 일자리 예산, 세계수련선수권 대회 지원 예산 등 광주·전남 현안 사업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될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가 파행의 과정을 거쳐 박락되기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을 책임지고 나설 정당이 없어 과연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해찬 “공정경제 기반 탄탄할수록 민생회복 빨라져”

###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공정경제의 기반이 탄탄할수록 민생회복은 빨라진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취임 100일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출범시킨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를 본격 가동시켜 노동계, 시민사회와의 정책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반칙과 불공정이 해소되면 민생현장에서 울의 눈물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포용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2022년까지

(현재 8대 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며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라며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형 비리와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맥쿼리 이익금 늘려주려고 보장수익률 年 9.8% 약속

### ‘의혹 투성이’ 광주시-맥쿼리 변경협약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와 맥쿼리 자회사 (주)광주순환도로투자가 체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실험협약에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금융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2000년 실험협약과는 전혀 다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작성돼 있겠다.

◇자금제공금액, 재정지원대체자금 등 아리송한 용어들=광주시는 협약 변경을 통해 그동안 시의 부담이 높았던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바꿨다.

MRG는 실제운영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5%에 미달하면, MCC는 실제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면, 각각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금리가 약 20%에 달하는 미지급금의 원금 851억원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감면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막대한 합의금을 내놓았다.

변경협약서에 ‘자금제공금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시가 맥쿼리 자회사 (주)광주순환도로투자에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다. 101억4736만원은 일시불로, 260억원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3.72% 금리로 (주)농협은행에서 빌려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수수료가 8억원이 붙었다. 시가 2028년까지 1014억원 (추정치)의 부담을 줄이는 대가로 현재 369억원의 원금을 더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재정지원대체자금이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했다. 시가 맥쿼리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맥쿼리가 특정금융기관에서 재정지원대체자금을 조달하고, 시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또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또는 대출확약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판’을 마련해두며, 맥쿼리가 지정한 금융기관 역시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도록 했다.

◇기존 투자금에 490억원 더해 9.8% 수익률 약속=변경협약을 통해 합의한 신규 민간투자자금은 2341억5000만원에 달한다. 맥쿼리의 자본금은 330억50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011억원의 차지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에 맥쿼리가 빌려준 차입금이다. 선순위차입금 1350억원은 9.8%, 후순위차입금 661억원은 14.7%의 금리다. 당초 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 1420억원(금리 10%), 후순위차입금 319억5000만원(20%), 운영자금 32억6100만원(15%) 등 1772억1100만원에서 238억8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과 그에 따른 이자 약

### 자본·차입금 2341억으로 늘어

### 고금리 차입금도 그대로 유지

20%가 붙은 1190억4000만원에 원금 851억원은 시가 일시에 지급했다. 여기에 369억원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1190억4000만원보다 많은 1220억

###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주)광주순환도로투자 자본구조 추이

구분	금액(억원)	이자율
자본금	543	14.53% 예정
차입금	1,122	11.2%
정부융자금	151	7.0%
주주차입금	138	11.2%
총액	1,840	보장수익률 9.34%

### □ 2016년 12월 협약 변경 후 (광주시 주장)

구분	금액(억원)	이자율
자본금	330.50	
선순위차입금	1,350	9.8%
후순위차입금	661	14.7%
총액	2,341.50	미지급금 815억 원 지급, 보장수익률 9.8%, 합의금 형태 369억 원 지급

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맥쿼리가 공시한 자료에서의 자본구조는 이와 다르다. 맥쿼리는 자본금 331억원, 선순위 대여금 1420억원, 후순위대여금 352억원에 신규 대여금으로 고정금리 10.5%짜리 490억원을 추가해 투자금은 모두 2593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맥쿼리가 100% 지분을 가진 (주)광주순환도로투자가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광주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로부터 선순위장기차입금 1420억원(금리 10.0%), 중순위장기차입금 500억원(10.5%), 후순위장기차입금 319억5000만원(20.0%), 운전자본용 후순위 장기차입금 32억6074만1000원(15.0%)을 차입했다. 이후 2017년에는 선순위 1155억원(금리 10.0%), 후순위 319억5000만원(20.0%), 운전자본용 32억6,074만1,000원(15.0%), 중순위 500억원(10.5%)을 맥쿼리로부터, 재정지원 대체자금 199억원을 3.7%에 파인스트리트인프라전문사모투자신탁으로부터 각각 차입했다. 파인스트리트 자산운용(주)은 2015년 광주시 재정경감대책단 회의에 제

구조화 전문가로 참여한 황모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시는 여기에 매년 운영비, 법인세 등을 지급해야 한다. 법인세를 대신 내주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늘어나는 투자금, 수익률 낮았지만 자본구조는 그대로= 지난 2000년 작성된 실험협약에 따르면 1구간 총민간투자자는 1840억원이었으며, 자본금은 543억원, 차입금은 1297억원(이자율 11.2%, 7.0%),

### □ 2016년 12월 협약 변경 전

구분	금액(억원)	이자율
자본금	330.50	
선순위차입금	1,420	10%
후순위차입금	319.50	20%
운영자금	32.61	15%
미지급금	1,190.40	약 20%
총액	3,293.01	12%대로 추정

### □ 2016년 12월 협약 변경 후 (맥쿼리 공시)

구분	금액(억원)	이자율
자본금	331	
선순위차입금	1,420	10.0%
후순위차입금	352	20.0%
신규 대여금	490	10.5%(고정금리)
총액	2,593	연체이자, 지급이금 규모가 1,045억 원 받음

수익률은 9.34%였다. 이를 맥쿼리가 인수한 뒤 자본금은 130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차입금을 1752억6000만원으로 높인 뒤 이자율은 10%, 15%, 20%로 변경시켰다. 자본금과 차입금이 최초 1840억원, 이어 1888억1000만원, 2102억61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최종적으로 2341억5000만원까지 커졌다. 게다가 맥쿼리는 공시에 투자금 규모가 259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맥쿼리가 자본구조를 변경하면서 수익률이 기존 9.34%에서 12%대로 상승했다. 이번 협약 변경에 따라 9.8%로 낮춰달라 설명했다. 그러나 9.8%는 은행권 금리의 2~3배 수준이다. 고금리 차입금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맥쿼리는 공시자료에서 “거래의 결과 사업시행자는 광주시와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종결하고 미지급 재정지원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맥쿼리는 사업시행자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가부터 연체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이자 1045억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펀드의 재무 안정성이 강화된다”고 적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여행은 무안공항에서 시작하세요!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박람회  
2018. 12. 3(월) - 12. 23(일)

### 대만/동남아

**대만**  
698,000원~  
대만/시우펀/야류 3일,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 목, 금, 토 3박 5일  
#매일 운항 3박 4일 (12월 20일부터)

**방콕**  
685,000원~  
방콕/파타야 5일, 6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 목요일 3박 5일  
토, 일요일 4박 6일  
#태국 및 3박 4일 #다이나믹여행지

**코타키나발루**  
799,000원~  
코타 5일, 6일 시내 준특급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목요일 3박 5일  
일요일 4박 6일 #12월 23일부터 운항  
#아일랜드호텔 #반딧불투어

### 일본/중국

**기타큐슈**  
590,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벵부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 운항 2박 4일  
#자족온천 #캐널시티

**오사카**  
970,000원~  
오사카/코토/나라 4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일, 월, 목 3박 4일(12월 21일까지)  
매일 운항 (12월 22일부터)  
#일본관광명소 #다양한 특식

### 세부

564,000원~  
세부 5일, 솔레아리조트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 수, 금, 토 3박 5일  
#12월 21일부터 운항  
#해안+관광 즐기기 #필리핀의 보물

### 캄보디아

949,000원~  
캄보디아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2월 2일, 2월 9일 3박 5일  
2월 6일, 2월 13일 3박 4일  
#천년의 도시 #세계유네스코유산

### 다낭

799,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12월 20일까지)  
매일 운항 3박 4일 (12월 21일부터)  
#4성급호텔 #투어부동산 #후에전통가

### 상해

329,000원~  
상해/항주/주자강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항주/주자강의 베니스 #주자강 빛터

### 상해/장가계

1,0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  
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승 #일식아이스빙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철보통료, 관광진출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여행상품 가격은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될 경우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0004-1993-6 (중로구형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1818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성급이상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승선물 등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산/불만처리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20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관광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여행 경고 4.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